25 중안모 기형과 두개기저부와의 관계

이안나*, 정필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악교정수술을 위해 시행하는 진단과 분석은 그 수술방법의 결정 및 예후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1931년 Broadbent에 의해 두부방사선규격사진법이 치의학 분야에 도입되면서 진단과 분석의 객관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선학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안면 영역의 균형과 조화, 양호한 기능과 형태에 대한 객관화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중안모의 부조화를 교정하기 위한 상악골절단술이 활발히 적용됨에 따라 중안모 기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안모 기형에 끼치는 두개 기저부와 비격막의 성장과 발육의 영향은 논쟁의 촛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 등은 정상교합 및 양호한 안모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 및 본과에서 중안모 기형을 주소로 1992년도부터 상악골절단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상의 여러 계측점을 중심으로 그 계측치의 차이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중안모 기형과 두개기저부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보고하는 바이다.

1. 중안모 기형이 심할수록 전방두개기저부의 각도가 크다.
2. 중안모 기형이 심할수록 안면심도각(Facial Depth angle)이 작다.
3. PNS의 후방위치는 중안모 기형에 기여한다.

Relationship of Cranial Base and Midfacial deformity

An-Na Yi*, Pill-Hoon Choung
Dep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nalytic procedure for diagnosis before orthognathic surgery is very important for decision of operation method and predict the prognosis. In 1931, Broadbent applied Cephalometric analysis to dentistry and that accelerated objectivity. But, in spite of continuous research, we don't have any satisfactory standarized analytical tool on balance, harmony, good function and morphology in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Moreover, recent active application of maxillary osteotomy to correct the midfacial deformity necessitates the object standard for midfacial deformity.

Recently, influence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ranial base and nasal septum are on debate. So, we analysed 25 adult who has normal occlusion and balanced midfacial features and orthognathic surgery patient who has midfacial deformity. We explored some relationships on midfacial deformity and cranial base on the differences of cephalometric landmark on midfacial area. Results are as follows.

1. Midfacial deformity depends on the greater anterior cranial base angle.
2. Midfacial deformity depends on the lesser facial depth angle.
3. Posterior placement of the PNS contributes to the midfacial deformity

So, we report with some review of previous journal.